

한경훈 / 2월 / 도약 GS / 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34241	20	12.5	18.5	11.5	62.5	1	4.55%	7	22
534342	20.5	13.2	16	11.5	61.2	2	9.09%	7	
529059	21	13.3	16	10.5	60.8	3	13.64%	7	
529237	18.5	13	15	10.5	57	4	18.18%	5	
524423	19.5	13.5	15	8.5	56.5	5	22.73%	16	
534313	19.5	13.7	13.5	8	54.7	6	27.27%	6	
534807	16.5	13	15	9	53.5	7	31.82%	6	
534175	19.5	12.7	14	7	53.2	8	36.36%	6	
529165	18.5	12.5	12.5	9.5	53	9	40.91%	5	
529277	17.5	12.5	13.5	9.5	53	9	40.91%	4	
534222	18.5	11	15	8	52.5	11	50.00%	5	
534165	19.5	13	11.5	8	52	12	54.55%	5	
528964	19	13	12	7.5	51.5	13	59.09%	7	
534201	19	14	10	8.5	51.5	13	59.09%	7	
534426	17.5	12.5	13	8	51	15	68.18%	5	
529402	17.5	12	15.5	4.5	49.5	16	72.73%	6	
534163	19	13.3	9.5	7	48.8	17	77.27%	6	
534397	17	11.5	13	6	47.5	18	81.82%	6	
534230	18	12.5	8.5	6.5	45.5	19	86.36%	4	
534188	17	11.2	9.5	7	44.7	20	90.91%	4	
534355	18	12.5	6	8	44.5	21	95.45%	5	
534187	16.5	11.5	11.5	2.5	42	22	100.00%	4	

한경훈/2월/도약GS/6회/1번	채점자
	이정은
<p><b>1. 전반적인 총평</b></p> <p>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답안 구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적법성에 대한 기재 누락이 많았습니다. 본안 요건들에 대해서 다 짚어주시면 서 포섭해야 합니다. 이 때 목차 제목으로 어떤 요건인지 잘 보이도록 해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 2</p> <p>125조 2항 2호 언급하신 분들께 추가 배점했습니다. 등록상표의 범위 등의 판례를 기재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p> <p><b>3. 소결</b></p> <p>불사취는 중요 논점이기에 다들 어느 정도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조문 언급, 적절한 판례 타겟팅이 중요합니다.</p>	

한경훈/2월/도약GS/6회/2번	채점자
	이정은
<p><b>1. 전반적인 총평</b></p> <p>119조 1항 1호를 타겟팅한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처럼 목차의 강약조절을 적절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1호와 3호 취소심판에 대한 취지를 두껍게 기재하시면서 동일성 고려 요부에 대한 판례 포섭이 필요합니다. 취지만 기재하거나, 취지를 기재하면서 짧게 언급하신 경우에는 감점이 있었습니다.</p> <p>(2) 설문 2</p> <p>요건 누락이 종종 있었으며, 요건에 대한 판례가 한두 개 누락되거나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범 답안과 실제 판례를 여러 번 읽어보며 키워드를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p> <p><b>3. 소결</b></p> <p>1번과 2번이 큰 결에서는 비슷한 문제이기에 답안을 작성하실 때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답안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p>	

한경훈/2월/도약GS/6회/3번	채점자
	윤영우
<p><b>1. 전반적인 총평</b></p> <p>평이한 설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논점을 빠짐없이 작성했는지, 판례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사안 포섭을 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갈렸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영문과 한글의 결합상표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상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p> <p>논점이 하나임에 비해 배점이 비교적 크므로 판례를 두껍게 작성하셔야 했습니다. 사안 포섭의 경우 실제 판례처럼 관념과 호칭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좋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답안에 적힌 판례 외에도 일부를 생략한 경우의 판례를 작성한 경우에도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불사용취소심판의 요건을 검토하여 취소심판의 심결을 예측하는 문제였습니다.</p> <p>설문 상 ‘공업식 액추에이터’에 대한 사용인지 여부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적극/소극 모두 사안 포섭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동일한 점수를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취소심판의 심결도 인용/기각심결 모두 동일한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입증책임 논점을 작성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p>	

### **(3) 설문 3**

34조 3항의 거절이유를 검토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안에서 취소심판 청구 후 심결 확정 전 출원했으므로 개정법에 대해 간단히 작성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와 출원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 누락한 답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합상표인 등록상표 중 일부만을 채택한 상표를 출원했으므로 이 또한 논점이 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 주세요.

### **3. 소결**

불사용취소심판 논점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논점입니다. 따라서 요건인 ‘자정동3국사’에 해당하는 논점을 각각 정리하고 실제 사안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안을 작성하며 누락한 논점은 기본서에 체크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복습해 주셔야 합니다.

한경훈/2월/도약GS/6회/4번	채점자
	윤영우
<p><b>1. 전반적인 총평</b></p> <p>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20점짜리 통문제였습니다.</p> <p>배점이 큰 경우 여러 사실관계가 논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를 꼼꼼히 읽으며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합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문제에서 甲이 3년 간 상표를 불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므로 불사용취소심판이 메인 논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乙이 무슨 취소심판을 청구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취소사유에 대하여도 간단히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p> <p>“POCACHIP”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인지에 대한 논점의 경우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고 사안 포섭을 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모범 답안과 실제 판례를 여러 번 읽어보며 키워드를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p> <p><b>3. 소결</b></p> <p>논리적인 답안은 목차만 보고서도 내용이 예측되는 답안인 것 같습니다.</p> <p>내용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비등하게 목차를 잘 작성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본서에 있는 정형적인 목차를 그대로 작성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목차를 작성할 경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p> <p>또한, 목차 옆에 적극/소극, 부적법/적법 표기를 적극 활용할 경우 가독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p>	

[문제-1] (상호법은 아하, 조아라 한다.)

## I. 실문(1)

### 1. 제119조 1항 2호 취소심판 의의·취리

상호 기제 안의 토지 및 수역 이용, 다른 상호 사용자의 신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권자에게 상호권은 사유권이 될리게 하는 대신 감속의무를 부과하여 상호권자가 부당 사용시 취소사유가 된다.

### 2. 대상상호 Y의 권력(각각)

#### (1) 대상상호 Y에 대한 인식도 취리제

대상상호의 권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권리에 속해있고 그 상호 또는 상호권자나 하면 그 상호 또는 상호가 특정인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 (2) 대상상호 Y의 권리 취리제

대상상호가 상호권자의 권리행사에 속하거나 비특정 상호권자 또는 상호에 대한 대상상호권이 인정된다.

#### (3) 상호권이 인정된 경우 취리제

대상상호가 인정된 경우, 권리 상호권자나 그로부터 상호권자를 받은 자는 본래의 타인에 해를 끼칠 수 없다.

#### (4) 사안

① 상호 Y는 상호 A에 대하여 무의 취리권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② 상호 Y가 X의 권리행사에 속하

거나 비특수 상표인 것은 문제되지 않고, ㉠대성상표에 대한 권자가 X의 권리상표인가임에도 '라인'에 해당하는 바, ㉡Y는 조.119조 1항 2호의 라인의 사용상표로서 대성상표와 인접한다.

### 3. 혼동 범위 전부 (각각)

#### (1)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 판단방법 체계

등록상표 또는 사용상표와 대성상표 사이의 위상·호칭·단형·문체·색·패턴으로 판단하여 판단하되, 사용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사회통정상 상품·업무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있을지가 궁극적으로 가늠해 된다.

#### (2)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체계

상표권이 이전되어 권리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상을 계속 사용하든 경우 혼동의 우려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상표권을 배타적으로 하인의 상품 사용은 금지할 수 있는 범위와 이를 독립적으로 사용한 권자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등록상표와 신사용상표, 대성상표 사이의 관계를 고려 사회통정상 등록상표의 부당한 사용으로 평가될 정도로 이르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3) 사안

① A사는 무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서 등록상표



X와 사회통념상 동등한 수준 X'를 Y에 대해 사용  
중인데, ② 丙 홈페이지의 '회사 연혁'란 등에 회사  
신입 직원에 甲의 관련 '甲'을 기재하여 甲과  
관련 있는 자로 오인된 우려가 있으며, ③ X'를 Y와  
유사한 식으로 해당하여 출회 연·월 등 영계가 있으나,  
④ 이러한 丙의 사용은 상용권 이권으로 일반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혼동 범위를 넘어서, ⑤ 사회통념상  
부당한 사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  
이므로, ⑥ 甲의 영구 등과 혼동은 불대입된다.

#### 4. 乙의 감독의무 준수 여부 (5점)

##### (1) 감독의무 준수 여부 (항 2인서)

상용권자가 사용권과 부경사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무는 한 경우에는 위와사유 면제된다.

##### (2) 감독의무의 관련성 여부 (항 3인서)

상용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용권과 부경 사용에 대해 주의를 준 정도로는  
부족하고, ① 사용권자의 식별 사용을 강제적으로 감독  
하는 등 사용권자 식별 사용을 식별적으로 지배 하에  
두었다는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하여야 한다.

##### (3) 브랜드 매뉴얼 준수 여부 (항 4인서)

상용권자가 사용권자에게 브랜드 매뉴얼을 준수하라고

주식 여부를 검사하여 시정 명령을 한 권리만으로는  
사용권자의 상품 사용을 신빙적으로 지배하여 주거나  
그 밖 등 없다든 양상이다.

#### (4) 사안

① 비록 그이 丙의 상품 사용에 대해 브랜드 매뉴얼  
내부 및 그 주식 여부를 검사하여 시정 명령을 한  
사실이 있으나, ② 그것만으로는 丙의 상품 사용을 그이  
신빙적 지배 하에 주었다는 한 수 없다 바, ③ 그는  
丙의 사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한 수  
없다.

#### 5. 결론 - 인통심권 예상

① 丙은 등록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 X'를 A에  
사용하여 甲의 Y와 인통·상표 등에 있어 오인·혼동  
야기하였고, ② 甲이 그이 각종 의무를 다한 사정  
없는 바, ③ 丁의 위조·등장 행위는 인통심권이 침해된  
것이다.

## II. 의문(2)

### 1. 예상되는 심판 - 기각심판

(1) 제119조 제3호 위조·등장 위위·취지



응축성분 분사용에 대한 제제 및 성분 사용 추천  
을 위하여, 인경 기간 내에 성분 사용이 없는 경우  
추천사항이 된다.

(2) ~~이항~~ '그 리깅음' 의미 뒤바뀜

① 조 119조 1항 3호의 '그 자질양성'이라 함은 자질  
양성과 복내적으로 증인한 양육은 물론, ② 개사치  
통영상 증인에게 볼 수 있는 양육도 포함된다.

(3) 사안

① 비록  $2$ 은  $X$ 를 사회통념상 자빙성품이라 생각하지 않  
은 상품  $b$ 에 대해 사용하여 대응번호가 인정되지 않  
으나, ② 대응인자인  $\overline{a}$ 이  $X$ 와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  
품  $X'$ 를 자빙성품  $a$ 에 계속적 사용한 사실 인정되  
나, ③ 대응번호 인정된다.

(4)  $\Sigma$ 인

따라서 3조 1항 3호에 따른 J의 책임은  
가장담당이 예상된다.

## 2. 귀납사유 추가 하부(각)

4) 심원형구서구 보령 3도 1252 2항

①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는 영수증을 병행할 수 있으나,  
② 청구의 취지 ~~를~~ ~~발~~ ~~표~~ ~~한~~ 이유를 보낼 때에는 가능하다.

(2) 사안

① J이 法119조 1항 1호는 취소사유를 추가할 것은  
 아니나, ② 法125조 2항 2호에 따라  
 형식적 ~~취소~~ 사유는 본법원은 허용하는 바, ③ J은 해산  
 취소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 3. 法119조 1항 1호 인정에

#### (1) 法119조 1항 1호 취소사유 추가

상호에게 안건 및 수과 이익 등, 다른 상호 사용  
 의 신용·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권자의 고의·부당행위  
 취소사유가 된다.

#### (2) Y의 대명상표 관행(관습)

① 法119조에 따르면 대명상표는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비  
 등록인 경우에도 관행 인정되고, ② 출원 상표로서 '타인'  
 이 해당되는 바, ③ 甲의 Y는 대명상표 관행 된다.

#### (3) Z의 부당행위 인정에

##### 1)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사용

등록상표 X와 동일·유사한 상품과 자명상표나 유사한  
 상표에 사용. 또는 X와 유사한 상품과 자명상표나  
 동일·유사한 상표에 사용했어야 한다.

##### 2) 신용·명목 등 혼동 야기

신용상표 사용으로 Y의 명목 등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3) 부정사용의 고지

고지 부정사용에 대해 고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문]

[문제-2]

I. 선출 (1)

1. 각 조문의 취지에 따른 취지에 따른

(1) 조 119조 1항 1호

본 조의 취지에는 상품 개개 안건은 조 119조 1항 1호에 따라 선출한 후를 방지하여 주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아울러 다른 상품 개개의 선출 및 이익으로 함께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조 119조 1항 2호

반면 조 119조 1항 2호의 경우 본문을 제1항과 동등한 선출의 선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의 취지이다.

(3) 조 119조 1항 3호

따라서 조 119조 1항 3호에서 동등한 선출을 촉진하기 위한 선출을 촉진하는 조 119조 1항 3호의 그 동등한 선출을 함께 볼 것이 아니라, 각 조문의 취지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살펴야 한다.



2. 사안의 해면 - 甲 남변 광복(54)

① 甲이 신사증권을 1, 2가 등록증권이다. 양계에서 사리  
 증명인 증인한, ② 조 1192 항 조항의 가정에 따라  
 유언증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③ 조 1142  
 1항 1호의 조항은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용 증권의  
 가정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④ 결론에 ② 조 1192 항 조  
 에서의 증인성 가정에 따라 ⑤ 조 1142 항 1호에서의 증인성  
 같이 한 것은 아니다. ⑥ 따라서 甲의 주장은 부당하다.

## II. 실문 (2)

1. 法 1192 항 2 위·하

생물 개체 간 **간접**으로 및 **수직**의 이익 관계를 취하며,  
생물 개체가 **그의** 환경상을 형성하는 **생물** 개체  
사이이다.

2. 2 비행원 경직(경직)

①  $\frac{1}{2}$ 이 라르면 대칭점과 이쪽 성질의 값은 묻기  
라기 양을 바. ②  $2$ 의 대칭점은 본보의 대칭점의  
값이 있다.

3. 甲의 유채밭위 대 사용 여부(각각)

## (1) 유사범위 이 사용 권리행사 사례

신사용상품과 등록상품을 변형한 것이어서 등록상품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변형 사용한 경우 대당상  
중심의 관계에서 특허 요인·효능 평가가 더 가벼  
기 된 경우에는도 본 특허 유사성을 인정도 된다.

## (2) 사안

① 甲의 신사용상품은 등록상품과 문자의 배치, 굵고  
크게 변형하여 다른이 상하사, ② 이는 그 대당상  
과 가깝게 변형한 것으로, ③ 甲 등록상품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그 대당상과 특허 요인·효능 영  
려가 더욱 가벼이 된 바, ④ 甲 신사용상품 1, 2는  
본 특허에서 말하는 등록상품과 유사성에 해당한다.

4. 그 밖에 특허 권리 행사 여부 (각각)

## (1) 특허 권리 행사권 사례

양 상품의 다른·조형·인상을 전체·부분적으로 인식  
하여 권리행사, 즉각적으로는 신사용상품의 사용으로  
양 상품이 가리키는 상품 특허의 요인·효능 영  
려가 있음을 기준으로 권리행사 한다.

## (2) 사안

① 그 ~~특허~~ 대당상과 甲 신사용상품을 볼 때.  
② 甲 신사용상품은 그 다른 대당상과 근사하게

변형하여 강제적으로 볼 때 상당히 유사해 보여도 바,  
 ③ 이는 적신각인 甲. 乙 상충 사이에 특허의 도입. 활용  
 영리가 있는 지에 보므로, ④ 甲 신기술은 乙의  
 업무 등과 혼동을 일으킨다.

## 5. 甲 부임용 신의 개부(각각)

### (1) 부임용에 대한 신의 판단 사례

① 심판관이 2개상충을 각 인정시 신기술은 사용  
 하여 특허 도입. 활용은 인정하는 한 부임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 보며, ② 2개상충의 취지. 2개상충  
 경우에는 특허의 사상이 없는 한 근거가 부정된다.

### (2) 4안

① 乙 2개상충을 취한 신기술, ② 甲이 乙 2개상  
 충을 인정 하였다는 특허의 사상이 되어 있다,  
 ③ 甲의 부임용에 대한 근거가 부정된다.

## 6. 심판의 개판 - 인용심판 예시

① 이 사건을 참작하면 甲은 2개상충 부임용이 있음이  
 인정되나, ② 해당심판의 인용심판 예시이다. [결]

R.5





1. 법원을 다른 관할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3. 사안

① 甲 상표는 영문사 'CONTINENTAL'과 '콘티넨탈' 한글 음역이 결합되는 상표이다. ② 우리나라 영미 법상 상표를 고려할 때 각 영문과 한글 음역이 별개의 표지를 갖는 한 둘 별칭·호칭이 같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고, ③ 둘 다 '대륙'이라는 '대륙의'로 번역되어 결합되는 새로운 수법상, 인상이 발생하므로 다르다. ④ 甲은 상표상권과 같이 한글 음역도 생각하여도 충분히 호칭·인명인 것이 바, ⑤ 甲 상표상권은 甲 등록상권과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한다.

### 4. 식물의 해충

따라서 '甲 상표상권'은 201193 항 3호에서 말하는 '등록상권'과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다.

## II. 식민(2)

### 1. 201193 항 3호 위위 취지

본청에 대한 계약을 가한 등록상권 상품에 복합을 위해, 인명 가한 등록상권 본청에서 복합에 해당한다.

2. 甲 생생생생과 생생생생이 여부(각각)

신문 (1)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甲 신생상품은 등  
록상권의 개시회동영상 중첩하여 등록상품에 해당한다.

3. '그 네쌍둥이'에 대한 내용과 여부(은)

(1) '그' 4성음' 관련 事例

지정상품에 사용하였거나 함은 문제의 동일한 상품으로 물론  
개비사회 공영성 동일한 상품에 적용한 경우로 인정한다.

(2) 수익의 결정권 관련방법 4/1/11

자신상종교 공인한 성품인지는 성품이 종교·형식·용  
빛 수태와 그 방위 등 성품이 속성과 개체인지를  
융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사관

① 甲의 각임승은 '무의미한' 일로, ② '의미론 텍스트'  
에만 사용했을 바, ③ 두 승은 무슨 연도가 같고  
개체용 부호로 사용된다는 같은 실체이나, ④ 승의  
표현 및 형식이 상이하여 ~~수치상~~ 사회충념상 등  
인한 승이고 또 이 때문 바, ⑤ 유사승에 불과하여  
甲은 각임승에 사용했는지 볼 수 없다.

4. 공인행위가 정당한 사유없이 여부(소극)

(1) 권영한 서울 우리 뉴스 119로 3행



상표권과 같은 상표 사용의 강행성에 대해 스스로 주의  
입증해야 한다.

## (2) 2019년 1월 3호 강행한 사용의 위법성

### 1) '사용'의 의미

2019년 1월 3호 판례에 따르면 상표권은 사용행위를 의미한다.

### 2) '강행한' 사용의 의미

①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교환자를 개조 독립적인 상품에  
목적에 따른 분류이어야 하며, ② 국내에서 상습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된 것은 제외해야 한다.

### 3) 반반칙 판례의 적용

상표는 상품에 사용된 사실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일  
성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된 것은 제외해야 한다  
판례 2019년 1월 3호의 취지를 취하기 위한  
명백한 사용에 불응한 경우, 강행한 사용이 불가능하다.

## (3) 사실

① 2022. 12.부터 2023. 1.까지 총 5회에 걸쳐  
'甲' 상표권을 '인문브이벤트'와 관련해 행사했다.

② 당시 활동권과 맞지 않는 '인문브이벤트'의 세로로  
인쇄할 수 없다. ③ '甲'이 '인문브이벤트'의 세로로  
인쇄할 수 없는 일련의 사실로 인하여, 1월 3호 판  
례의 취지 상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④ 본 상표권을 취득한 후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명백한 사용

에 불리하고 국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⑤ 양판 사용은 볼 수 없다.

## 5. 실문의 해설

### (1) 불사용 여부(각각)

① 甲은 특허청이 특허 204.9.1.로부터 2이 취  
심판은 항판 204.12.24.에 이르러서, ② 중년성이  
인정하는 甲 사용권은 자당당에 강하게 사용  
바 있는 바, ③ 그 기간이 3년은 지나지 않았다.

### (2) 불사용에 대한 강행한 시에 종류(각각)

① 甲은 이라는 불사용에 대해 강행한 시가  
있다는 볼 수 없다. ② 甲은 이라는 면해 위  
해 영속성 있는 행지만 하였다.

### (3) 전술 - 인정심판 예상

따라서 甲 사용권에는 204.11.2 상 3년 취  
시가 인정된다. 인정심판 예상이다.

## II 실문 (3) 3.5

### 1. 제1항의 개시항 - 3.5.743 3항

제1항의 실시권 인정은 개시, 제1항을 충족한 후  
3년 이내에 제1항 실시권 위임에 이 관해 한다.

## 2. 취소심판 행정 진 현인

가심상등등등은 '취소심판이 행정인 그 행정 업무에 다른  
각도에 해당하기 인 장'라 하여 취소심판 행정 진이나  
은 심판 장 후 재결인 A 해당 기일이 기일일로 행정  
기 하였다

## 3. 상원의 주사여부(각)

① 甲의 이인 등록상등등은 영문이나 한글 등등이 해당되어  
취소제에 따른 한글 등록으로 행정·인정된 것인데,

① 위거나 영문등록으로 한글에 'CONTINENTAL'이 영문  
'CONTINENTAL'이 한글 등록으로 함께 간 수 있고,

③ 甲 출원 상등과 이인 등록상등은 모두 '대륙'으로  
인정되어 관청이 동일하거나 작기로 유사한 것이며,

④ 그 외형에 있어서도 'CONTINENTAL'로써 동일 관청 유사한  
것인 바, ⑤ 上원의 주사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상등의

특성상(취소제), ⑥ 이러한 행정·인정의 유사한 과인이  
같은 상등한 강등으로 인정 될바, ⑦ 양 상등은 행정

인·등록 영문과 같은 취소등록.

## 4. 상원의 해당·등록 불가

甲 출원 상등은 이인 등록상등과 동일·유사한 상등을 동일  
한 상등에 동일 등록 관련 이 출원한 것으로서, 3.3.3.3



3항에 반하여 등록 불가능하다.

[문제-4]

11.5

I. 2019년 1월 30일 특허심판 위·취시

특허심판 위·취시 및 사용권 등록 위·취시, 인·출  
불·출시 위·취시로 규정하고 있다.

II. 정정·추가

① 다른 위·취시는 문제에서 찾아 2019년 1월 30일 검토  
할 것인 바, ② 특허 1호의 권리 범위가 甲의 사용권  
인·출 후 범위가 된다. ③ "POACHED"이 甲 사용권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④ 특허에 대한 정정·추가  
신청이 문제된다.

III. 甲 사용권 甲 사용권 인정(제1항)

1. 사용권 제1항

상·출권. 정정·추가 또는 통상·통상권 등 어느  
누구도 정정·추가 없이 등록·출시 위·취시로  
인·출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2. 제3항의 사용 - 예외 사용

하한 상표권과 등이 외국에서 상표에 상표를 표시하  
 였을 뿐 국내에서 상표라 인식하지 않으므로, ① 제 3자가  
 상표권과 등이 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상표를 국내로  
 수입하여, ② 그대로 국내에서 정상 유통될 때에  
 국내에서 상표가 특정한 상품 출처로 인식된 경우,  
 ③ 상표권자의 ~~상표권~~ 국내 등록권 상표권으로 볼 수  
 있다 한다.

### 3. 사안

① 甲이 국내에서 직접 甲 상표를 사용한 것은 아니나,  
 ② 乙이 甲이 "POCACHIP"을 표시한 그대로 상표를  
 국내로 수입, ③ "POCACHIP"은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  
 에게 甲 상품 출처로 인식된 바, ④ "POCACHIP"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면 甲의 상표권이  
 인정 된다.

## IV. "POCACHIP"의 등록권 여부(예제)

### 1. 등록권 발생 예제

등록상표나 상표 등록상표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표는  
 물론, 사회통상 관행에 볼 수 있는 상표를  
 포함한다.

### 2. 식별력 없는 부가 사용 예제

(식별력이 없는 부가 사용으로 부가 사용된다고 하리



다른 경우에 따라 등록가능성과 사회경제적 효과에  
 그 볼 수 있는 다른 특징. 본명이 생략 되어 있으나  
 식별성이 없다 미약한 부분을 부가해서 하여 사회경제  
 상 공정한 상거래는 인출식 인정할 수 없다.

### 3. 사안

① 甲 등록한 'POCA'에 부가된 'CHIZP'은 '가름'에  
 뒤쳐 지게 된 때 '리'로 '리'라는 단어에서 그 가  
 치로는 식별성이 없다 미약하다. ② 'POCACHIZP'인  
 제 부가된 볼 때 'POCA'와 'CHIZP'이 대체하  
 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고, ③ 바르다 같은 제 등록  
 "포카림"으로 판독되어, ④ 'POCACHIZP'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 인정받으므로, ⑤ 사회경제적 'POCA'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특징. 본명이 서로이  
 생략된 볼 수 있다. ⑥ 등록한 사안이 볼 수 있다.

### V. 불충족에 대한 강력한 사에 권위(소극)

#### 1. 강력한 사에 약한 2011년 3월

생략된 것은 불충족에 대해 강력한 약자가 인출  
 스스로 부담. 인정해야 한다.

#### 2. 강력한 사에 필연적 부가제

불충족에 대한 강력한 가지는 원시적. 인정 등본  
 이다라 국내에서 인정. 인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상업상에서 귀속주가 아닌 사유로 의해한다.

### 3. 사안

甲이 국내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사업장이 없는데  
필요한 것은 甲에게 귀속주가 되는 것으로서, 본  
사안에 대한 귀속주 여부를 논할 수 없다.

### VI 신원의 배당 - 인종상적 배당

따라서 甲은 국내에서 광범한 야구 선수 30명 이상  
등록상징을 그 사업장들에 사용하여 왔으며, 2억  
취득한 후에도 인종상적 배당이 예상된다.

<이하 여백>

## [문제-1]

## I. 선문(1)

(4)

1. 법 119조 1항 2호 이하, 취지

상표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 거래와 밀접한  
이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표 사용자의 영업상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유사범위에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킨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유사범위에서 사용했는지 여부(적극)

(1) 유사범위 사용 여부 판단 기준 제시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대응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  
위험이 더 커지게 되었다면 이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

(2) 4인

같은 등록상표 X와 4회용년상 동일한 상표 X'를  
동일한 상품 A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등록상표를 변형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유사범위 내의 사용에 해당한다.

3. Y의 대상권적 전부(적극)

(1) 요구되는 인식도 제시





대상상품은 적어도 국내 특정인의 상품 클리프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2)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타인' 범위 제외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출원 상표권자나 그의 허락을  
받은 사용자와도 타인에 포함된다.

(3) 미등록 상표인 경우 제외

상표법상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살을 수 있다.

(4) 사안

① 甲의 사용상품 Y는 국내 수요자에게 甲의 클리프로  
인식되었고 ② Y가 미등록상표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될 수 있으며, ③ 甲은 상품 X의  
출원 상표권자이나 '타인'에 해당하므로 Y는 대상  
적격을 가진다.

4.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적극)

(1) 혼동 판단기준 제외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실사용상품의  
변형 정도, 대상상품과 근사한 정도, 양 상품이 상등에  
사용되는 형태, 상품 간 관련성, 수요자에게 인려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2) 상표권 이전에 있는 경우 제외



상표권이 이권된 경우 중권 상표권자의 압력과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9 경우 금리형3권 (조특108조 1항 1호, 101조 1항)의 범위와 독점사용권 (조특89조) 범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상호 간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 사회통념상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 (3) 4단

① 상표X가 甲에게서 乙로 이권된 후 乙에게 사용 허락을 받은 丙은 i) 대상상표 Y와 유사한 X'를 ii) 동일한 상품 A에 사용하고 있고 iii) Y는 甲이 출원으로서 알려진 바 수표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② 또한, 丙은 甲의 전신인 '甲1'을 출원하여 회사연혁란 등에 기재하였으나, 丙과 甲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수표자들이 볼 때 甲이 출원로 인식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부당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 ③ 따라서 丙의 사용은 수표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 5. 乙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 (소극)

#### (1) '상당한 주의' 의미 제시

상당한 주의란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하에 두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4안

① 乙은 丙에게 상품 4통에 대한 브랜드 메뉴얼을 교부하고 그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시정 요청을 했으나, ② 이런 사항만으로는 乙의 실질적인 지배력에 두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丙은 甲의 상품 출처와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부정사용을 하였고, 乙은 이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바 3항 119조 1항 2호에 해당하여 인통실질의 내러진 것이다.

II. 실문(2)

1. 취소실한 예상실적 - 기각실적

(1) 3항 119조 1항 3호 외의 취지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고 불4통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이상 불사용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4안

① 乙은 상품 X를 지정상표 a와 사회통념상 동일하게 알리는 상품 b에 사용한 바 외의, 지정상표 a에도



~~사용하였고~~ ③ 乙의 사용권과 丙은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품 X'를 지정상품 A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乙는 119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각성결 예상된다.

## 2. 乙 119조 1항 1호 추가 거부(적극)

### (1) 乙 125조 2항 2호

심판 청구서의 보충은 보기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 이유를 보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다만

乙는 지정상품 전체에 대해 乙 119조 1항 3호를 주장 하였으므로 상품 범위를 처음 주장과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해 乙 119조 1항 1호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 3. 乙 119조 1항 1호 인정요건

### (1) 乙 119조 1항 1호 의미, 취지

상품 거래 안전, 수요와 이익 보호 등 상품권자가 고의로 유사범위에서 사용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2) 유사범위의 사용 여부

乙의 사용상품 b는 지정상품 A와 유사하므로 유사범위 내의 사용이다.

### (3) 혼동 여부



乙의 사용으로 인해 甲 상표 Y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고의 중복

乙이 甲 상표 Y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2]

I. 실문(1)

1. 각 조문의 취지

(1) 法 119조 1항 1호 취지

상표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질을 높이고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상품 사용자의 영업상 신용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규정이다.

(2) 法 119조 1항 3호 취지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고 불사용에 대한 위제를 가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등록취지를 보완하여 제3자 상표 선택의 기회를 넓리기 위함이다.

2. 甲의 당변의 타당성 - 부당

(1) 法 119조 1항 1호의 '유사' 판단 제1절

法 119조 1항 1호에서 유사 범위의 사용인 지 여부는

法 119조 1항 3호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관계 없이



각 조문의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4안

① 조항 119조 1항 1호와 3호는 각각 2 조문의 취지가 명확히 다른 규정이므로 ② '동인'과 '유사'에 대한 판단은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조항 119조 1항 3호의 동인성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용이라는 甲의 양변은 부당하다.

4.2

II. 설문(2)

1. 조항 119조 1항 1호의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를 유사범위/이서 사용한 경우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이 일어났다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甲이 유사범위에서 사용했는지 여부(각각)

(1) 유사범위 사용 판단기준 제시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출처 혼동이 두렵거나 더 커지게 되었다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

(2) 4안

① 甲은 자신의 등록상표를 가로에서 세로로 변형하여 식사용 상표 1을 사용하였고 ② 정자로 배열된 甲 등록상표를 지그재그로 배치하고 글자 크기도 각각 다르게 함으로써 식사용 상표 1, 2를 사용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은 일으키게 되었으므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 3. 2대상상표의 적격 검토(각각)

#### (1) 요구되는 인식도 제1사례

대상상표는 국외·지명항 것은 모라지 않으나, 국외도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어야 한다.

#### (2) 권리범위 속하거나 비등록인 경우 제1사례

대상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 비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볼 수 있다.

#### (3) 4인

① 대상상표가 등록된 4권이 없고 甲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적격성이 문제이고, ② 乙의 대상상표는 甲 4용 권부터 검토 용돌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국외한 바 적격성이 인정된다.

## 4. 활동 목록 (적극)

## (1) 활동 판단기준 제1항

외관·호칭 관념은 전체적으로 관하여 유사용상품의 변형 정도, 영 상품이 상품에 사용되는 형태, 상품의 근사한 정도, 상품과의 관련성,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2) 4항

유사용상품 1과 2는 2의 대상상품과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도 같다고 보여지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또한 '캐디백'과 '골프백'은 유사한 상품이며 2의 대상 상품은 수요자들에게 극히하게 알려졌으므로 1의 유사용상품들은 2의 임박한 관련된 상품과 활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5. 고의 목록 (적극)

## (1) 판단기준 제1항

대상상품이 즉·지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추정된다.

## (2) 4항

2의 대상상품은 골프용품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극히한 바 1의 고의는 추정된다고 보여진다.

## 6. 결론 - 인용상권 예상

甲은 고의로 자신의 등록상표를 제4항위에서  
 사용하여 출처표등을 일으킨 바 3항 11항 12항 13항  
 해당하여 인용상권이 예상된다.

(3.2)

## [문제-3]

## I. 선행문(1)

## 1. 재심판리

甲이 '甲'상표상도를 사용한 것이 불사용위에서  
 여서의 '甲'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살핀다.

## 2. 등록상표의 범위 判例

등록상표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상표 자체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도  
 포함된다.

## 3. 영문과와 한글음역 결합상표의 일부사용

## (1) 判例

영문과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한 상표에서

1)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고

2) 영문과와 한글 중 어느 한 부분만으로도 동일하게

호칭되는 경우 거래사회동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다.

## (2) 정도

① 시장의 변화에 따라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거래 현실이고, ② 우리나라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할 때 한글은 영문을 그대로 표칭한 것을 안기 쉬우며 ③ 연합상표 제도가 폐지된 것 등을 고려할 때 제1회 태도처럼 사회동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 4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4만

① 甲의 등록상표는 'CONTINENTAL'라 이를 단순히 음역한 '콘티넨탈'이 결합된 상표로서, ② 이 둘의 결합으로 인해 '대륙통의'라는 관념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고 ③ 일반 소비자들이 보고 'CONTINENTAL'을 쉽게 '콘티넨탈'로 동일하게 표칭할 것이므로 '甲'식사용상표는 '甲'상표와 동일한 상품의 사용에 해당한다.

## II. 설문(2)

7.5

### 1. 제119조 1항 3로 의의, 취지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고 불사용에 대한 위태를 가하기 위해 상표권과 등이 광대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2. '지정상품'에 사용했는지 여부 (소극)

### (1) 지정상품이 특정 사례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조적 거래실정 등을 기준으로 거래통념상에 따라 판단한다.

### (2) 지정상품의 의미 사례

지정상품 그 자체는 물론 거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도 포함된다.

### (3) 4인

지정상품인 '고급 브이벨트'와 '엔진용 벨트'는 유사한 코드가 동일하고 기계용 부품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공통되나 품위 및 형상이 상이한바 지정상품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3.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소극)

### (1) 정당한 사용 판단기준 사례

상표법상 상품의 개별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 예정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광고행위가 병행상 사용인 상의 사례

등록상품이 광고 등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처

표시로 사용되지 않거나, 국내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을  
예상하지도 않는 경우 등 명목상 사용란 경우라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다.

### (3) 사용

- 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주 1회씩 총  
5회에 걸쳐 생활정보의 광고란에 '甲식사용상표'가  
'고북 브이벨트'와 관련하여 광고란 사용이 인정되나,
- ② '고북 브이벨트'의 지리정보를 전혀 알 수 없고,  
제조·판매 및 납에 등과 관련한 자료는 물론  
甲의 기밀적인 회사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③ 국내에서 정상  
적으로 유통된다고 보기 어렵고 유통 예상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④ 이는 단지 불사용취소를 변하기  
위한 명목상 광고행위에 불과하므로 ~~甲은~~ 등록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란 것이 아니다.

### 4. 결론 - 인용심판 예상

- ① '甲식사용상표'는 ~~甲의~~ 등록상표와 사외특정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나, ② 지평상표 '고북 브이벨트'와  
'엔진용 벨트'는 동일성 인정되지 않고 ③ ~~甲의~~ 광고  
행위는 불사용취소를 변하기 위한 명목상 행위에  
불과하며 ④ 상표등록일인 2021. 9. 1로부터 3년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24. 12. 24까지  
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인용심결  
예상된다.

## Ⅱ. 설문(3)

2.5

### 1. 法34조 3항 아예, 취지

최소실효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실효 청구  
후 일정 요건 만족시 상표권과 등은 3년 이내  
유사범위 내 개출권이 불가하다.

### 2. 최소실효 청구 후 실질 확권권인 경우

개정 상표법상 法34조 3항의 판단시점을  
'실효청구일'부터 '실질확권 후 3년까지'라고 명확  
하게 규정하였다.

### 3. 상표의 유사여부(적극)

'CONTNENTAL'과 '콘티넨탈'이 결합된 甲의  
예전 상표와 새로 출원한 'CONTINENTAL' ✓  
을 외관은 한글 음역의 차이가 있으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유사범위의 상표  
에 해당한다.



## 4. 4안

## (1) 시기적 요건 충족 여부 (각각)

甲의 출원상표는 취소심판 항소일인 2024.12.24  
이후이자 심판 확정일인 2025년 6월 전인 2025.  
5.2에 출원되었으므로 3항의 시기적  
요건은 만족한다.

## (2) 등록 가부 (소극)

취소 심판 확정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상품 '고무 브이베트'에 출원한 바 甲은 등록받은  
수 없다.

## [문제-4]

11.5

## I. 3항 1항 3호 의미, 취지

등록상표의 사용을 독점하고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상표권과 등이 권당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불사용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II '甲'이 사용했는지 여부 (각각)

## 1. 원상

3항 1항 3호는 상표권과, 전용사용권과, 통상  
사용권과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아서 적용된다.

## 2. 제3자가 국내 사용한 경우 제1항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사용한 바 없더라도 ⅰ) 제3자에 의해 국내로  
수입되어 ⅱ)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에  
정상적인 유통과정이 높이기 됨으로써 ⅲ) 사회  
통념상 소비자 등이 상표권자의 출처 표시로 인식  
된 경우 이는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본다.

### 3. 사안

① 甲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적 없이 베트남  
에서만 사용했으나 ② 제3자 丙의 수입에 의해  
③ 국내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유통업체에 꾸준히 납품  
했고 ④ 소비자들은 'POCACHIP'을 甲의 상표에  
관한 출처 표시로 인식하였으므로 ⑤ 甲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Ⅲ. 甲 상표의 동일성 인정 여부(소극)

### 1. 등록상표의 범위 사례

등록상표 2 개체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표도 포함된다.

### 2. 결함으로 인한 새로운 관념의 형성 사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결함하였거  
라도 전체적인 구성 등이 비극어 등록상표의  
동일하지 않은 외관·칭호·관념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사취동년상 동일한 상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3. 4단

① 'CHIP'은 과립상품 '과과'와의 관계에서 그 과제로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나, ② 'POCA'와의 결합으로 인해 수요자들은 'POCACHIP'을 하나의 브랜드로 호칭·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③ 'POCA'와 'POCACHIP'은 외관·호칭·관념 모두 상이하므로 사취동년상 동일한 상품라고 볼 수 없다.

### 4. 甲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소극)

#### (1) 판단기준 제시

각종 기타 권리리벤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국가의 수입 제한 조치 등 상품본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 (2) 4단

甲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단지 국내에서 사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甲이 복사용이론 상당한 이유가 없다.

### 5. 결론 - 인용상설 예상

甲은 국내에서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시권상표에  
사용하지 않았고, 본사등이 정당한 이유도 없  
는 바- 특허 119조 1항 3호에 해당하여 인통  
상표 내려질 것이다